

自發的 結社體 理論을 韓國社會에  
適用하기 위한 豫備的 試圖  
- 自發的 結社體 分類圖式의 提案 -

金 錫 俊\*

目 次

- I. 序 論
- II. 自發的 結社體와 參與의 概念
- III. 自發的 結社體 分類圖式의 檢討
- IV. 自發的 結社體 分類圖式의 提案
- V. 結論과 提言

I . 序 論

自發的 結社體 (voluntary associations)의 형성과 참여의 확대는 근대사회의 변동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기 사회학자들이 利益社會 (Gesellschaft), 結社體的 社會 (association), 二次的 關係 (secondary relation) 등의 용어로<sup>1)</sup> 근대의 변동방향을 지칭한 것이나, 二次集團 (secondary groups)을 민주주의의 견인차로 생각한 정치학자들의 주장은<sup>2)</sup> 모두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관심으로 합류한다.

\* 社會科學大學 社會學科 專任講師

- 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용어들은 각각 F. Tönnies, R.M. Mclver, C.H. Cooley의 것이다. ; Tönnies, F.,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黃性模 譯, 「共同社會와 利益社會」(서울, 三省出版社), 1976; Mclver, R. M., and C.H. Page, Society: An Introductory Analysis, (London: Macmillan), 1960; Cooley, C.H., Social Organization (New York: Scribner's), 1909.
- 2) cf. De Tocqueville, A.,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46, 또는 Kornhauser, W.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尹謹植, 朴容直 共譯, 「大衆社會의 政治」, (서울, 日新社), 1966.

역사적으로 볼 때, 자발적 결사체는 産業化와 都市化가 진행될수록 필요성이 증대하며, 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보장될수록 충분히 활성화할 것이 기대된다. 말하자면, 산업화와 도시화의 주 특징인 人口密度의 증가, 設備의 集中化, 거주자의 異質化는 종래의 전통적 인간 관계의 지속을 어렵게 할 것이다.<sup>3)</sup> 따라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場이 요구되며, 이 때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여러 모양의 이차집단이 代案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커진다.<sup>4)</sup> 그러나 이런 사회적 조건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정치제도 내지 문화적 측면에서 民主的·多元的 原理가 수용될 수 있어야만 자발적 결사체의 형성과 참여가 신장될 것이다. 全體主義的 國家나 劃一的 文化的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심 (interest)의 추구를 본질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들에 대해 體制의 統制力을 강화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sup>5)</sup> 그러므로, 자발적 결사체는 정치체제의 支配原理와 그 사회의 文化的 志向 뿐만 아니라 産業構造와 社會生態學的 構造와도 관련성이 높은 사회조직인 셈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자발적 결사체의 형성과 참여하는 정도는 위의 사회적 조건들의 指標로도 逆算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처럼 자발적 결사체는 연관된 여러 사회현상을 보기 위한 핵심적 尺度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를 대상으로 삼아 그 實體를 규명하고자 다방면에서 수행된 연구가 적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를 다룬 연구실적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sup>6)</sup> 이렇게 된 까닭은 복잡적이겠지만, 필자의 생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항목화할 수 있다.

- 3) Wirth, L.,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44, 1938, pp.1 - 34.
- 4) 미국의 도시거주자들에 있어서 原初的 集團에의 비공식적 참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이런 연구들이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이차집단이 都市的 現象임을 부인하진 않는다. Axelrod, M., "A Study of Formal and Informal Group Participation in a Large Urban Community", Ph. D. thesis, University of Michigan, 1953. 과 그의 다른 논문, "Urban Structure and Social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21, 1956, pp.13 - 18;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地域社會의 규모와 관련시켜서는 자발적 결사체가 都市的 現象이라는 사실에 異論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Babchuk, N., and A. Booth,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A Longitudin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34, 1969, pp.31 - 45 와 Curtis, J., "Voluntary Association Joining: A Cross National Comparative Not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36, 1971, pp.872 - 880. 등이다. 하지만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操作的 定義를 통해 都市化와 參與를 연구할 때는 이와는 달리 자발적 결사체가 도시적 현상임을 지지하게 된다: cf. Guterman, S.S., "In Defense of Wirth's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74, 1969, pp.492 - 499.
- 5) Rose, A., Sociology: the Study of Human Rel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Inc.), 1957, pp.308 - 309.
- 6) 최근에야 자발적 결사체에 관한 기초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다음의 것들; 金瓊東, "社會發展의 組織原理: 自發的 組織體의 社會的 구실을 중심으로" 「崑山 申泰植博士 古稀紀念論叢」, 1975, pp.797 - 809 와 同一著者의 「發展의 社會學」(서울, 文學과 知性社), 1979; 宋復, 「組織과 權力」(서울, 傳藝苑). 1980; 金錫俊, "大學生의 自發的 結社體에 관한 研究: 社會經濟的背景 및 性과 參與間의 關聯性을 중심으로", 高麗大 碩士學位論文, 1982; 장세진, "한국지역사회의 엘리트와 자발적 결사체에 관한 일 연구: J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3; 洪東植, "대도시에서 일차적 사회관계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회조사연구」 3권, 1984, pp.139-154.

i) 가족, 친족 위주의 전통적 人間關係의 綱이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껏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례들과 인식의 優勢이다.<sup>7)</sup> 이 입장을 따르면 자발적 결사체 따위의 보완, 또는 대안적 人間關係의 場이 그리 시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에의 관심이 암암리에 차단되고 만다. 이것은 한 가지 유용한 比較對象을 스스로 내던지는 일이라고 본다.

ii) 자발적 결사체를 公式組織化(formal organizaion)한 것만으로 좁혀 연구하는 경향이다.<sup>8)</sup> 이렇게 협의로 개념화하는 것은 자발적 결사체 參與率의 조사와 분석을 容易하게 하고자 선택되지만, 자발적 결사체 범주에 들어가는 準公式인 자발적 집단(quasi-formal voluntary groups)을 제외시켜 버려 기존 理論의 적용범위나 實在하는 현상에의 접근을 제약하고 만다. 이 경향은 가족 또는 친족관계로부터 벗어난 社會組織으로서 자발적 결사체 - 공식조직화가 이루어진 - 에 관심을 쏟는다는 의미에서 위 i) 항과 대조적이다.

iii)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범주에 속하는 한국의 사회조직들이 보여주는 官製的·御用的 樣態들이다.<sup>9)</sup> 이로 말미암아 자발적 결사체를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이에 대한 접근 역시 거의 반 타의반 불편스러워진다.

iv) 우리사회의 市民的 運動組織에 대한 급진주의적 해석과 정치적 측면만의 부각이 있다.<sup>10)</sup> 이것은 위 ii) 항의 반대급부라고 생각되나, 결과적으로는 자발적 결사체가 원래 지닌 사회적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이상 네 가지 요인을 들었는 바, 이들은 서로 대조적인 측면도 있으나, 각기 배타적으로영향을 주지 않고, 상호 작용하면서 자발적결사체 연구의 적극적 추진을 가로막는다. 더 나아가 이들 요인의 뿌리를 캐내자면, 그 根源이 자발적 결사체를 연구하기 위한 準據들의 결함 내지는 결핍에 있다고 할만 하다.

7) 다음을 참고할 것: 崔在錫 「韓國人の 社會의 性格」(서울, 民潮社), 1965; 李効再, “轉換期에 선 家族主義”, 邊衡尹, 宋建鎬 共編, 「歷史와 人間」(서울, 두레), 1982, pp.73-88; 金晉均, “韓國社會의 構造의 力動性을 分析하기 위한 몇 가지 概念에 관하여”, 서울大 社會學硏究會編, 「韓國社會의 傳統과 變化」(서울, 汎文社), 1983, pp.351-362; Yunshik Chang, “Personalism and Social Change in Korea”, in Yunshik Chang et al., (eds.), *Society in Transition*,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2, pp.13-28.

8) cf. 洪東植, op. cit.

9) cf. 李効再, “韓國社會構造의 性格: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론”, 韓國基督教社會問題硏究院 刊, 「韓國社會變動硏究(Ⅱ)」(서울, 民衆社), 1966, pp.141-245.

10) 학생운동을 분석했고, 오래된 자료이지만, “特輯, 韓國學生의 레지스탕스의 構造”, 「世代」, 1964, 6월, pp.112-135.

이런 추리는 결국 자발적 결사체의 概念이나 그에 연결된 논의들, 가령 機能이나<sup>11)</sup> 分類圖式에 관한 체계적인 기초 작업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작업을 거쳐야만 한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를 연구하기 위한 準據들의 밑바탕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네 요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발적 결사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 만큼, 이런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자발적 결사체 연구의 장애요인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原動力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예비적 수준에서나마 이 작업에 나름의 기여를 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목적하에 본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과 분류도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한 가지 분류도식을 提案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제안하는 분류도식은 한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를 구체적·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연구하기 이전 단계에 시도된다는 점에서 잠정적이며, 앞으로의 정교화를 바라는 예비적 수준임을 미리 밝혀 둔다. 그러므로 지금의 연구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 Ⅱ. 自發的 結社體와 參與의 概念

자발적 결사체는 그것을 형성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양한 만큼 결사체마다 다양 각색의 구조와 기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라는 개념은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예가 허다하다.

Rose는 自發性(voluntariness)과 非自發性간의 연속성을 설정하면서 개념규정을 시도한 적이

11) 자발적 결사체의 사회적 중요성은 그 機能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의 기능에 관해서도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의 逆機能 내지 葛藤의 要素와의 대조도 더불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후의 전개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機能을 언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해서는 우선 다음을 참고해 두기 바란다: 기능에 대해서는, 宋復, op. cit., pp.34-40; Henderson, C.R., "The Place and Functions of Voluntary Associ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1., 1895, pp.327-334; Rose, A., op. cit., pp.327-332; Sills, D. L., "Voluntary Associations: Sociological Aspect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16, (New York: Crowell Collier and Macmillan, Inc.), 1964, pp.372-376; Babchuk, N., and J.N. Edwards, "Voluntary Associations and Integration Hypothesis", Sociological Inquiry, V.35, 1965, pp.149-162; 역기능 또는 갈등적 요소에 관해서는, Lewin, K., "The Problem of Minority Leadership", in Gouldner, A.W., (ed.), Studies in Leadership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0, pp.477-504.; Barber, B., "Participation and Mass Apathy in Associations", in ibid., pp.477-504; Maccoby, H., "The Differential Political Activity of Participants in a Voluntary Associ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23, 1958, pp.524-532; Morris, R.N., "British and American Research on Voluntary Associations: A Comparison", Sociological Inquiry, V.35, 1965, pp.186-200; Akers R.L., and R. Quinney, "Differential Organization of Health Professions: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33, 1968, pp.104-121.

있다.<sup>12)</sup> 그는 결사체에의 참여가 物理的으로 (physically) 强요될 경우와 生得的으로 성원이 되는 두 경우를 '자발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自發的'이란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의미를 취하면 된다고 한다. 이에 Rose는 자발적 결사체를 "개인들이 의도적으로 참가하고 의도적으로 탈퇴할 수도 있는, 그 목적이 자신들의 지닌 바를 表出하거나 그들 자신이나 사회의 與他部門을 위한 특정의 것을 이루려는 데 있는 집단"<sup>13)</sup>이라고 定義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을 너무 넓은 의미로 규정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Rose의 자발적 결사체 안에는, 로타리 클럽이나 YMCA, 각종의 취미 및 레크레이션 단체와 專門職團體, 동창회, 친목회, 봉사단체는 물론이고, 노동조합, 教會, 政黨, 私立學校와 企業體까지 광범위한 사회조직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정의는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Sills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다섯개의 기준을 열거한다.<sup>14)</sup>

- i) 成員들이 공유한 특정의 이해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형성될 것.
- ii) 成員資格은 강제적 委任이거나 生得的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자발적일 것.
- iii) 國家와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일 것
- iv) 조직의 主活動이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 즉, 成員들의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것
- v) 참여자의 다수가 無給與 成員일 것.

여기서 Rose의 정의와 Sills의 기준을 종합하자면, 구체적으로 자발적 결사체란, (정부혹은 공공기관과는 달리) 私的인 조직이며, (가족, 씨족, 민족, 국가등의 귀속적 집단이 아닌)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一般企業體와는 구별되는) 非營利的 無報酬性을 띠어 직접적인 개인의 생계유지와 무관하고, 어디까지나 시간이 허락할 때 부분적으로만 (part-time) 참여하는 사회조직체를 말한다. 예컨대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YMCA나 라이온즈 클럽, 갖가지의 취미 및 레크레이션 결사체와 봉사단체, 또는 친목회, 청소년 단체와 專門職團體 등이 자발적 결사체에 속한다.<sup>15)</sup>

이렇게 한정된 기준으로 특징지워지는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는 社會參與 (Social Participation)의 한 형태이다.<sup>16)</sup> 사회참여는 "특정 집단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의 顯在化"<sup>17)</sup>라고 정의되

12) Rose, op. cit., pp.306 - 307.

13) ibid., p.568.

14) Sills, op. cit., pp.362 - 363.

15) 政黨이나 勞組를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시키는가 아닌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양자를 다 포함시킨 예 하나, Booth, A., "Sex and Social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37, 1972, pp.183 - 192.

16) 參與의 概念을 종합적으로 다룬 예: Hong, D.S., "Towards a Hypothetical Model of Participation - Institutional Approach to National Development", 「사회조사연구」 V.1. 부산대 사회조사연구소, 1982, pp.47 - 58.

17) Baude, W.W., "Social Participation in Rural Society", in Bertland, A.L.(ed.), Rural Sociology,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8, p.142.

커니와, Wilson과 Schulz는 이를 個人的水準과 集團水準의 상호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sup>18)</sup>

개인적 수준의 사회참여는 家族關係에서 나타난다. 가족관계에의 참여는 그것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各樣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기본적 社會化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집단 수준의 사회참여는 公式的 參與(formal participation)와 非公式的 參與(informal participation)로 구분된다.<sup>19)</sup> 공식적 참여는 公式組織(formal organization) 즉, 지도자, 규칙, 또는 규약, 成員資格要件등의 조직화된 구조를 갖는 집단에 들어감을 뜻한다. 이에 비해 비공식적 참여는 近隣, 친우 및 동료집단, 친족 등 상대적으로 덜 조직화된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일컫는 것이다.

대개 앞서의 예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들은 식별가능한 명칭이 있고, 성원자격요건, 정기적 회합과 규칙 또는 규약이 갖추어져 있으며, 때로는 직책의 전문화나 位階의 序列化도 분명하여 비교적 標準화된 공식조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는 공식적 사회참여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곧 공식적 사회참여라는 等式은 무리한 단순화라고 생각한다. 다음 章의 類型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sup>20)</sup> 사실상 組織的 構造의 측면에서 볼 때, 자발적 결사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수시로 형성되는 準公式的 自發的 行爲集團들(quasi-informal *ad hoc* voluntary groups)과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때에 따라서는 관료계적으로 거대조직화한 自發的 組織體(voluntary organizations)까지를 다 망라하는 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準公式的인 自發的 集團이란, 家族이나 친족관계의 歸屬的(ascriptive)인 성원자격요건에서 近隣이나 親友集團만큼 벗어나 있으나, 특정 명칭을 가지고, 内部的 조직화된 구조적 측면의 일부가 공식화한 반면, 公式組織으로 인정하기에는 職責의 전문화나, 位階의 높이, 규약 또는 규칙이 엄격한 정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말하자면, 비공식적 집단과 공식조직의 限界的(marginal) 位置에 있는 자발적 결사체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사회참여의 형태도 이에 맞게 公式, 準公式, 非公式 參與의 셋으로 구별함이 적절하고, 자발적 결사체 참여는 非公式的 社會參與이외의 두 형태의 참여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 흔한 소규모의 親睦會나 同甲契등의 모임형태가 있다. 이런 모임들은 Rose나 Sills의 개념정의와 일치하는 면이 많아 자발적 결사체, 그 중에서도 準公式的인 자발적 집단에 소속시킬 수 있고, 그에 대한 참여는 준공식적 참여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18) Wilson, R.A., and D. Schulz, *Urban Soci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78, pp.96-97.

19) 公式化(formalization)의 개념은 본고 IV장에 집중 논의함.

20) 특히 다음을 참조: Chapin, F.S., and J. E. Tsouderos, "Formalization Observed in Ten Voluntary Associations: Concepts, Morphology, Process", *Social Forces*, V.33, 1955, pp.306-309 및 Warriner, C.K. and J.E. Prather, "Four Types of Voluntary Associations", *Sociological Inquiry*, V.35, 1965, pp.138-148.

자발적 결사체를 공식조직만으로 한정시키고, 그것을 공식적 사회참여와 等式化한다면, 이런 모임들은 공식화의 정도가 낮은 탓에 자발적 결사체의 범주에서 제외되기 쉽다.<sup>21)</sup> 이점은 한국 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를 연구하고자 하면 명심해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거니와,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 결사체적 특징을 구비한 모임형태의 다수는 기실 그와 같이 準公式的 集團인 채로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곧 공식적 참여라고 규정하는 사례를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런 等式化도 나름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 같다. 특히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그와 대비되는 原初的 社會關係 혹은 전통적 인간관계 등의 비공식적 참여와 비교하거나, 양자간의 관련성을 따지는 연구에서 흔하다.<sup>22)</sup>

그런데, 이를 자세히 보면 그러한 등식화가 단지 연구목적과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서만 채택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등식화의 배경에는 오래된 사회인식의 한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社會進化論의 견지에서 도출된, 전통과 근대, 농촌과 도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그리고 血緣과 脫血緣 등등의 二分法的 認識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발적 결사체를 공식화된 사회조직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립되는 것으로 原初的·비공식적 사회참여를 개념화함으로써, 연구대상인 특정사회나 그 성원들이 과연 전통적 농촌사회의 특징을 보이는가, 아니면 근대적 도시사회의 성향을 나타내는가 따위의 의문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假定下에 위의 등식화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을 취하게 되면, 자발적 결사체를 협소하게 개념화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원래 함축하고 있는 理論的 融通性을 살리기는 커녕 적용의 범위마저 축소시켜버릴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자발적 결사체를 일단은 準公式的인 자발적 집단과 公式化한 자발적 조직체를 한 데 포함하는 용어로 廣域化하여 具體的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런 개념화는 앞의 Rose 와 Sills 의 개념정의와도 부합시켜야함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이런 논의가 자발적 결사체를 공식조직화한 것만으로 좁게 한정시킬 수 없다는 주장은 아니다.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화는, 본 장의 머리에서 지적했듯이,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그의 임의에 맡겨지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다. 지금의 주장은 다만, 자발적 결사체를 애초부터 편협하게 접근함으로써 혹 잃어버릴 지도 모를 學問的·實踐的 意義들을 되살리자는 의도적인

21) 물론, 이 경우에는 종래 契나 그와 유사한 모임들에 대해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접근한 연구들의 영향도 작용한다. 즉, 위와 같은 모임형태들을 經濟的 契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만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지닌 자발적 결사체적 특징들을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되고, 그 결과 이들을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 범주에서 당연히 배제시킬 것으로 여기게끔 영향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f. 金三守, 「韓國 社會經濟史 研究」改訂四版, (서울, 博英社), 1974.

22) 셋만 예시하면: 洪東植. op. cit.: Axelrod, M., "A Study...", op. cit.: Karsada, J.D., and M. Janowitz,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 39, 1974, pp. 328 - 339.

것으로 이해함이 좋을 것이다.

사실 자발적 결사체라는 연구주제는 보통 생각하듯 그렇게 사소한 것이 아니다. 다른 학문분과<sup>23)</sup> -예를 들면, 역사학이나 인류학, 정치학-를 좀 엄격히 배어 놓고, 사회학의 영역내에서만 보더라도 적어도 세가지 이론적 관심이 자발적 결사체에 모아진다.<sup>24)</sup>

하나는, 사회 특히 산업사회의 특성 및 구조와 자발적 결사체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경향이다. 여기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벽돌로서 자발적 결사체를 인식하며, 그것의 사회적 機能 즉, 정책적 의사결정, 여론형성, 社會化, 사회변동등의 사회과정에서 담당하는 구실을 주제로 삼는다.

두 번째는 社會心理學的 接近들이다. 이 경향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과 그들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격을 자발적 결사체를 연구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자발적 결사체는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연출하고, 욕구의 충족을 구하며, 인간으로서의 自我를 표출하는 하나의 환경이자 生活世界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自然的 實驗集團으로서 자발적 결사체를 인식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자발적 결사체 자체를 研究單位로 간주하는 組織論的 關心이다. 결사체의 조직적 구조, 그 작용과정, 환경변화의 내부적 결과와 관계, 그리고 갖가지 구조적·조직적·이념적 특성들간의 상호관련성을 따져보는 노력들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자발적 결사체가 比較組織構造分析에 매우 쓸모있는 연구대상임을 입증해준다.

이렇듯, 자발적 결사체는 여러 이론적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연구대상으로서의 자발적 결사체가 지닌 값어치를 확인시켜 준다. 동시에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규정하는 태도가 모든 경우에 정당화될 수는 없음을 잘 시사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이 세 가지 이론적 흐름은 각각 자발적 결사체의 機能과 成員들의 社會的 相互作用, 그리고 결사체의 組織的 構造에 대한 관심이라고 단순화할 수 있다. 이것은 자발적 결사체의 주요 이론적 영역으로 이 세 측면이 있음을 말해주며, 자발적 결사체를 폭넓게 연구하려면 이 세 측면을 순조롭게 통합시킬 수 있는 틀을 구성해야함을 암시한다고 본다. 더우기 이런 틀의 필요성은 앞서 자발적 결사체 개념에 準公式的 自發的 集團과 公式的인 自發的 組織體를 다 포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름아닌 組織的 構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는 사실에서 더욱 높아진다.

다음 장은 기존의 자발적 결사체 分類圖式들을 검토하면서 이 세 측면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를 더 진전시키는 데 할애한다.

23) 각 학문분과 내에서 자발적 결사체를 연구한 예 : 역사학은, Israel, J.(ed.), Building the Organizational Society: Essays on Associational Activities in Modern America, (New York: The Free Press), 1972; 인류학은, Banton, M., "Voluntary Associations: Anthropological Aspect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p. cit., pp.357-362.; 정치학은, Kornhauser, op. cit.

24) Babchuk, N. and C.K. Warriner, "Introduction" Sociological Inquiry V. 35.No.2.1965,pp.135-137.

### Ⅲ. 自發的 結社體 分類圖式의 檢討

자발적 결사체의 分類圖式들은<sup>25)</sup> 단순히 결사체의 '明示된 目的 (stated purpose)'을 分類變數로 삼는 것에서부터 결사체의 構造와 機能 양자를 복합적으로 기준삼아 구성된 것까지 다양하다. 여기서는 분류도식의 分析的 效率性과, 바로 앞에서 논한 틀의 구성과 연관된 세 측면을 다룬 것을 우선시한다는 의미에서, 明示된 目的에 의한 분류의 검토는 생략한다.<sup>26)</sup> 그리고 검토는 비교적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분류도식으로 넘어가는 순서로 한다.

Fox는 5,000여개의 결사체를 연구하여, 각 결사체의 사회적 기능을 분류변수로 추출하고, 中心役割(majoral), 周邊役割(minoral), 媒介役割(medial) 結社體로 三分한다.<sup>27)</sup> 중심역할 결사체는 사회의 주요 제도적 이해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성된 자발적 결사체들로서, 事業, 專門職, 科學, 教育, 勞動 및 農業關聯 結社體들을 말한다. 그리고 중요한 少數集團들의 이해관심에 기여하는 여성단체, 교회연관조직체, 취미클럽이나 人種團體들은 주변역할 결사체이고, 매개역할 결사체는 특정 사회부문이나 제도들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복지단체나 자발적 의료단체가 매개역할 결사체에 포함되는데, 전자는 어떤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후원자 또는 독지가와 그 도움을 받아야 할 수혜자들을 매개하고, 후자는 질병을 앓는 환자나 일반인들을 의료전문가나 과학자들과 관계맺을 수 있게 중개해주는 결사체인 것이다.

이러한 Fox의 분류는 결사체의 사회적 기능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각 범주들간에 중첩적인 부분이 적지 않아 엄밀한 분류라고 보긴 힘들다. 왜냐하면, 대개의 자발적 결사체들은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든 성원과 외부와의 연결, 또는 외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에 있어서 매개역할 결사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 25) Blau와 Scott의 主受惠者圖式(cui bono scheme)에 의하면, 公式組織化한 자발적 결사체는 互惠組織(mutual-benefit associations)에 대부분 포함된다. 호혜조직이란, 그 조직의 產物로 주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바로 그 조직의 成員인 公式組織을 말한다. Blau, P.M., and W.R. Scott, Formal Organizations,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 1962, pp.40 - 58.
- 26) 자발적 결사체 참여율을 조사한 기초적 연구 중에는 '明示된 目的'을 분류기준으로 삼는 예가 많다. 그러나 이런 분류들은 그 외의 결사체 구조나 잠재적 기능에 관한 정보를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 예를 들면 Hausknecht의 다음과 같은 8개 유형으로의 분류가 있다. ① 민간 및 봉사단체(civic and service) ② 友愛團體(lozges and fraternity), ③ 교회 및 종교관련 단체, ④ 사교 및 오락단체, ⑤ 재향군인회 및 군사-애국단체, ⑥ 경제-직업-전문직 단체, ⑦ 문화-교육단체와 동창회, ⑧ 정치 및 압력단체, cf. Hausknecht, M., The Joiners: A Sociological Description of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 in the United States, (Totowa, N.J.: Bedminster), 1982: 그의 유사한 분류는, Dotson, F., "Patterns of Voluntary Association among Urban Working-Class Famil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16, 1951, pp.487 - 693; Komarovsky, M., "The Voluntary Associations of Urban Dweller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11, 1946, pp.686 - 698; Bushee, F.A., "Social Organizations in a Small C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51, 1945, pp.217 - 226.
- 27) Fox, S.D., "Voluntary Associations and Social Structure",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53.을 Sills, "Voluntary Associations...", op. cit., p.366에서 재인용. 그리고, Fox의 것과 분류변수가 유사하나 도출된 결과가 다른 예: Bell, W. and M.T. Force, "Social Structure and Participation in Different Types of Formal Associations", Social Forces, V.34, 1957, pp.345 - 350. 이들은 一般의 利害關心(general interest), 特殊階層的 利害關心(special-stratum interest), 및 特殊個人的 利害關心(special-individual interest) 結社體로 三分類한다.

문제를 고려한다면, Rose의 아래와 같은 분류가<sup>28)</sup> 결사체의 기능에 관해서만 평가할 때, 더 간결하면서 구분의 경계도 명확하다.

Rose는 결사체의 활동이 成員志向인가 아닌가를 가지고서, 表出的集團 (expressive group)과 社會影響力集團 (social-influence group)의 둘로 구별한다. 즉, 결사체 성원들이 그들 서로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심을 표현하거나 충족시키는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를 表出的集團이라 하고, 여기에 오락, 스포츠, 사교, 취미단체들을 포함시킨다. 한편, 결사체가 外部志向일 경우, 성원들의 활동은 그 사회의 특정 부분, 혹은 조건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모아진다. 예컨대, 女性有權者聯盟 (League of Women Voters), 全美有色人種向上協會 (NAACP;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등이 그 예인 바, 이런 결사체들이 사회 영향력 집단인 것이다.

Rose는 자발적 결사체를 이렇게 二分하고 있지만, 그의 관심이 사회영향력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실제 분석에서는 표출적 결사체의 기능을 매우 부분적으로만 고찰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관심방향이 분류도식의 분석적 효율성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이같은 평가는 Fox의 분류도식과 비교할 때 얻어지는 상대적인 것임은 물론이다.

자발적 결사체의 기능을 단일 분류변수로 선택한 위 두 연구자의 분류를 전체적으로 보면, 결사체의 기능을 거시적으로 인식하는 작업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각각이 모두 유용하다. 그러나, 결사체의 구조나 내부의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제공해주는 정보가 거의 없다. 機能과 構造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노릇이지만, 분석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소견에서 다음에 결사체의 構造를 분류변수로 삼은 보기를 들어 보겠다. 결사체의 組織的 構造는 機能과 더불어 자발적 결사체의 세 이론적 영역 중의 하나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Chapin과 Tsouderos는 결사체의 구조가 시간이 지날수록 無定型的의 비공식적 구조에서 序列化와 직책의 전문화가 진전된 공식적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결사체의 역사를 추적해 보았다.<sup>29)</sup> 그들은 대상 결사체의 文書를 중심으로 그 과정을 연구한 끝에 觀察可能한 構造的 分化의 정도에 따라 네가지 유형을 時系列的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는 成員役割集團 (the membership-role-group)이다. 이 때는 일반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중에 드러난 자연스런 역할을 서로 분담하여 집합적으로 집단활동을 유지한다. 다음은 成員幹部役割集團 (the executive-role-group)으로 指導力 (leadership)이 요구되는 지위가 생겨나서,

28) Rose, A., op. cit. pp.305-306.

29) Chapin, F.S., and J.E. Tsouderos, op. cit., 그리고, Sills의 組合型 (corporate type)과 聯合型 (federation type)의 분류도 결사체의 구조를 분류변수로 한 것임. cf. Sills, D.L., The Volunteers: Means and Ends in a National Organization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7.

결사체의 목표수행과 정책의 감독을 맡아보는 성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결사체를 말한다. 세번째는 투표와 선거를 통해 집단활동의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상황이 잦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成員代議役割集團 (the representative-role-group)이 있으며, 마지막의 事務員役割集團 (the staff-role-group)은 자원자나 피고용인이 성원관리, 문서의 수합, 성원간 의사전달과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경향이 강한 결사체이다.

이상의 Chapin과 Tsouderos의 분류는 무엇보다 결사체의 공식화(formalization)와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의 과정을 잘 드러내 준다. 가령 成員役割集團과 事務員役割集團 둘을 비교한다면, 전자는 가장 공식화가 덜된 상태이고 후자는 공식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분류는 결사체의 生命週期(life cycle)나 규모의 확대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원의 無關心과<sup>30)</sup> 관련된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에 준공식적인 자발적 집단과 공식화한 자발적 조직체를 다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위의 분류는 그런 概念化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이 있다. 말하자면, 성원역할집단은 아직 準公式的인 자발적 집단인 셈이고, 공식적인 사무원역할집단은 자발적 조직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둘은 모두 자발적 결사체라는 용어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추론이 Chapin과 Tsouderos의 분류에 취약점이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들의 분류는 결사체의 구조적 측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자발적 결사체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사회구조적 환경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려 한 예로는 Gordon과 Babchuk의 분류도식을 들 수 있다.<sup>31)</sup> 이들은 成員資格이 開放된 정도(accessibility of membership), 결사체의 地位追認能力(status conferring capacity), 그리고 機能, 즉 結社體活動의 方向이라는 셋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交叉시킨다.

대개 자발적 결사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원자격요건을 구비하는 경우가 흔하고 심지어는 歸屬的(ascriptive)인 제한을 두기도 한다. 예컨대 上流社會의 인사들로 성원범위를 한정한다든지, 직업이나 性, 또는 연령, 人種, 나아가서 특정 親族關係의 구성원만으로 자격요건을 구분짓는 결사체까지 여러가지다. 그러므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느 만큼 성원자격요건을 개방하고 있는가를 판별하게 되면, 그 결사체의 사회구조적 환경과의 관계-특히 社會的 範疇(social category)나 社會的 地位와의 관련이란 측면에서 -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 중에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다고 평가받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활동을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결사체라면,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역시 높을 것이 기대되며, 그에 따

30) 결사체의 規模와 無關心의 문제를 다룬 예: Barber, B., op. cit.

31) Gordon, C.W., and N. Babchuk, "A Typology of Voluntary Associ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24, 1959, pp.22-29.

라 그 결사체 성원들의 社會的 威勢 (social prestige)도 마찬가지로 높아질 것이 당연하다. 이 점은 사회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결사체내의 개인적 수준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테면, 어떤 결사체내에서 한 개인의 활동은 다른 성원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곧 그 개인의 성취정도를 의미할 것이다. 이로써 그는 결사체내에서는 물론이고 그 결사체와 연결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도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인정받게 될 것이다. 요컨대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한 성원은 결사체 내·외부로 부터 자신의 지위를 追認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결사체의 기능은, 앞의 Rose의 분류도식에서 보았듯이, 成員志向인가 外部志向인가로 나눌 수 있거니와, 이를 각각 表出的 機能(expressive function)과 道具的 機能(instrumental function)이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양자의 혼합형으로 道具—表出的 機能(instrumental—expressive function)을 상정할 수 있다.<sup>32)</sup>

Gordon과 Babchuk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표-1>과 같은 분류도식을 제시한다. 이 분류도식은 앞서 검토한 다른 어떤 것보다 인용하거나 적용시켜 연구해 본 사례가 많다.<sup>33)</sup> 이런 사

< 표 - 1 >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

| 성원자격요건<br>지위추진정도<br>기능 | 개 방 적                       |                    | 제 한 적                                      |   |
|------------------------|-----------------------------|--------------------|--|---|
|                        | 높 음                         | 낮 음                | 높 음  | 낮 음   |
| 도 구 적                  | Young<br>Republican<br>Club | Ku Klux Klan       | League of<br>Women<br>Voters               | Lithuanian<br>American<br>Council                   |
| 도구-표출적                 | Kiwanis                     | American<br>Legion | American<br>Sociological<br>Society        | Alcoholics<br>Anonymous                             |
| 표 출 적                  | Boy Scouts<br>of<br>America | YMCA               | Daughters of<br>the American<br>Revolution | Omega<br>(Nat'l Negro<br>Fraternal<br>Organization) |

출처 : Gordon and Babchuk, op.cit.p.28

32) 이는 앞의 Rose의 분류기준과 대동소이하나, Gordon과 Babchuk은 Parsons의 行爲類型을 참고하여 달리 명명한 것임. cf. Parsons, T., The Social System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1, p.79. 그의 명칭만 달리한 예는, Warner, W.K. and S.J. Miller, "Organizational Problems in Two Types of Voluntary Associ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69, 1964, pp.654-657. 이들은 'expressive' 대신 'consummatory' 라고 명명함.

33) 대표적인 예 : Warner and Miller, *ibid.*; Babchuk, N., R. Marsey, and C.W. Gordon, "Men and Women in Community Agencies: A Note on Power and Presti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60, pp.399-403; Jaccoby, A.P., "Some Correlates of Instrumental and Expressive Orientations to Associational Membership" Sociological Inquiry, V.35, 1965, pp.163-175; Booth, A. op. cit.

실은 이 분류도식의 분석적 유용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해줄 뿐더러, 앞으로의 정교화 가능성도 높음을 대변한다.<sup>34)</sup> 그러나, Gordon과 Babchuk의 분류는 결사체와 환경간의 구조적 관련성과 그 기능에 강조점이 두어져 상대적으로 결사체 자체의 組織的 構造와 성원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성격에 대한 고려를 별로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연구들도 결사체 내부의 조직적 구조나 성원들의 사회적 관계의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분야에 대부분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결사체의 구조와 기능, 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분류도식이 요청된다.

Warriner와 Prather는 기왕의 자발적 결사체 연구동향을 參與의 문제와 機能에 관심을 기울이는 흐름과 組織論的 分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으로 대별하고, 이 兩者의 관심을 결합시킬 수 있으면 위 문제도 함께 풀 수 있다고 제의한다.<sup>35)</sup> 이들의 주장이란, 조직분석의 입장에서 결사체 참여문제를 다룬다면 결사체에 따라 참여경향이 다른 요인은 물론이고,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참여율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해를 근거로 결사체의 구조와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Warriner와 Prather는 결사체의 중심적 활동이 産出하는 假定的 價値機能 (the assumed value function of central activities)을 단일기준으로 선정하고 네 가지 유형을 추려낸다.

결사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작용하는 것은 活動的 結果, 즉 기능에 대해 결사체 성원들이 공유하는 假定들의 集合體 (body of assumptions)라고 할 수 있으므로, 假定的 價値機能을 분류변수로 삼아 결사체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것들의 구조적 특성과 그에 대한 참여의 성격까지 함께 파악 가능하다. 이 때 假定的 價値機能은 전체로서의 성원집합체와 관련되고, 성원들에게 공통적인 활동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集合的 機能 (collective function)이다.

그들이 분류한 네 가지 기능과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은 다음의 것이다.

**A型**: 결사체 활동이 그것을 수행함 자체로부터 즐거움을 얻도록 마련되어 있다. 즉 遂行의 즐거움 (pleasure in performance)을 기능으로 한다.

**B型**: 결사체 활동이 타인과의 交際를 가능하게 한다. 즉 社交機能 (sociability function)이 있다.

**C型**: 象徴機能 (symbolic function)을 갖는 결사체들로서, 그 활동이 특정의 價値信念體系를 이끌어 내거나 확고히 하는 表徴이 된다.

**D型**: 결사체 활동이 재화나 용역, 또는 어떤 대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生産機能 (productive function)을 갖는다.

34) 가령 Ross의 정교화: Ross, J.C., "Toward a Reconstruction of Voluntary Association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 23, 1972, pp.20 - 32.

35) Warriner and Prather, op. cit.

Warriner 와 Prather 는 이 네 유형을 다시 實例, 活動相, 成員의 性格, 組織的 特性의 요목별로 비교분석하는데,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 표-2 > 와 같다. 이 표를 보면, 단일 분류변수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사체 성원들끼리의 사회적 상호 작용의 성격과 내부의 조직적 구조, 결사체와 有關

< 표-2 > 자발적 결사체의 가정적 가치기능과 유형

| 유형<br>비교항목 | A 형<br>(활동수행의 즐거움)  | B 형<br>(사교기능)  | C 형<br>(상징기능)  | D 형<br>(생산기능)  |
|------------|---|--|--|--|
| 실례         | ·스케이프댄스클럽<br>·브릿지클럽   | ·동갑모임<br>·사교클럽   | ·일부교회 및 교회<br>연관단체, 비밀결사   | ·여성유권자 연맹  |
| 활동상        | ·어느정도 표준화<br>된 게임 활동<br>·활동과 분리된 산<br>출물이나 서비스<br>에 중요성 안둠                      | ·수다떨기부터 공<br>식적 활동까지<br>다양<br>·성원간의 친목도<br>모가 주요 활동  | ·활동은 고도로 표<br>준화, 의례화, 정<br>교화 됨.<br>·활동의 의미는 상<br>징적 신념에 준거<br>해야 이해 됨  | ·활동의 분화가 뚜렷<br>·도구적 신념이 필<br>수적<br>·산출물의 관리와<br>조직의 유지가 중<br>요시 됨  |
| 성원의 성격     | ·어느정도 활동(게<br>임) 방식을 아는<br>자가 참여<br>·성원의 사회적 배<br>경은 다양<br>·표준화되고 피상<br>적인 인간관계 | ·성원들이 장기간<br>지속적으로 참여<br>·새로운 성원을 잘<br>받아들이지 않음.<br>·서로에 대해 익숙<br>히 알고, 사회적<br>배경은 동질적   | ·친족과 유사한 의<br>무와 사회적 관계<br>·의례행위와 그 의<br>미를 전달하기 위<br>한 사회화가 중요시<br>·비밀주의가 특징<br>·성원자격은 영구<br>적이나, 의례적, 상<br>징적 순수성을 침<br>해하면 제명 | ·성원자격요건은<br>구체적이나 비교<br>적 접근 용이<br>·성원들의 기술적<br>측면이 강조됨<br>·상호관계는 비교<br>적 공식적                                      |
| 조직적 특징     | ·위계가 편평하고<br>통제영역이 단순<br>·직책의 역할도<br>단순<br>·외부환경과 고립<br>적                       | ·상호작용속에서<br>드러나는 개인 자<br>신이 결사체 내의<br>위치 결정<br>·최소한의 공식적<br>구조가 있을 수<br>있으나 내적연관<br>성이나 기능은 거<br>의 없음<br>·공식적 규칙보다<br>안정적인 상호작<br>용 과정에서 공<br>유된 기대가 규<br>칙으로 작용 | ·의례의 성격과 조<br>직구조가 밀접히<br>연결<br>·의례적 순수성에<br>따라 위계질서 나<br>타남.<br>·직책은 특정 신념<br>요소를 표현  | ·활동이 전문화된<br>정도에 따라 고도<br>로 분업화<br>·위계가 수직화 하<br>여 통제영역 발달<br>·목적은 대외적으<br>로 합리화하는 이<br>데올로기 있음<br>·환경과의 관계 밀<br>접 |

출처 : Warriner and Prather, op.cit, pp.141-148에서 재구성

環境과의 관계를 비교적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있음을 본다. 더우기, 이런 사항들을 각각 따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脈絡的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거론되어 있다. 이같은 결과가 얻어진 것은, “原初集團(primary group)과 자발적 결사체, 그리고 공식조직의 개별연구가 서로 긴밀히 연결지워져야만 하겠다”는<sup>36)</sup> 그들의 의도가 반영된 탓이다.

이런 의도는 자발적 결사체 개념안에 準公式的인 자발적 집단과 자발적 공식 조직체를 다 망라하여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앞의 논지를 거듭 강조하게끔 도와준다. 즉, 자발적 결사체를 가운데 공식조직의 특징을 지닌 자발적 조직체들은 공식조직의 연구성과를 빌어 접근할 수 있겠고, 準公式的인 자발적 집단에 대해서는 그것과 近似하지만 구별돼야 할 原初集團-여기서는 非公式的 集團과 大同小異-의 연구결과들에 의해 설명 가능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Warriner와 Prather는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고, 그것을 염두에 둔 분류작업을 시도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의 유형 중 ‘A型’과 ‘B型’은 Gordon과 Babchuk이 말한 表出的 機能을 수행하는 결사체이고, ‘C型’은 道具-表出的 機能, ‘D型’은 道具的 機能의 결사체에 소속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것처럼 구분지은 까닭은, 각 유형의 내부구조와 성원간 상호작용의 성격, 그리고 결사체와 외부환경간의 관계를 일관되게 논의하기 위함인 것 같다. 실제로 <표-2>에서, 유사한 표출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A型和 B型은 특히 성원의 성격과 조직적 특징의 항목에서 비교됨을 알 수 있다. 가령 A型은 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피상적이고 공식화의 정도가 B型보다 다소 높은 반면, B型은 상당히 친밀한 인간관계 즉, 상호작용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사체의 기능을 간략히 정돈하고 차라리 구조적인 차이를 드러내줄 수 있는 기준과 성원들의 상호작용 형태를 관별할 수 있는 기준을 따로 선정하여 交叉시키면 더 선명한 分類圖式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표-2>는 필자가 각 유형과 항목별로 두드러진 특징만을 추출 요약해서 제시한 것이지만, 그들이 記述한 내용을 세세히 보면 예외적인 사례들을 지적해놓고서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자주 대한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결사체의 구조와 성원간 상호작용의 형태를 다루는 데서 특히 빈번하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해결 실마리는 결국 결사체의 機能과 構造, 및 成員間 상호작용을 동시에 그리고 분리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분류도식의 형성에 있다고 다시금 판단하는 것이다.

36) *ibid.*, p. 148.

#### IV. 自發的 結社體 分類圖式的 提案

본 연구가 제안하려는 분류도식의 構成方向은 Ⅱ장과 Ⅲ장을 거치면서 대체적 윤곽이 잡혔다. 요컨대, 본 연구가 의도하는 구성방향은 Ⅱ장에 例擧한 세 이론적 관심사를 포괄할 수 있되, 그 영역들을 분석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발적 결사체를 다양한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기왕의 연구성과를 폭넓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세 가지 이론적 관심사를 단순화시키면 자발적 결사체의 機能과 성원들의 社會的 相互作用, 그리고 組織的 構造의 세 측면으로 요약되며, 이 측면들을 다듬으면 자기 分類變數로 可用함을 기존의 분류도식들을 검토하면서 이미 시사하였다. 그러면서 조직적 구조의 측면은 다름아닌 구체적으로 광역화하여 자발적 결사체를 개념화하는 작업에 반영되도 살펴 보았다. 이런 개념화 주장은 또한, 한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 연구에 불가결하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자발적 결사체의 분류도식은 이 세 측면을 분류변수화 할 때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조직적 구조의 측면은 公式化(formalization)의 程度를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公式化는 標準化(standardization)와 동의로 사용할 수 있거니와,<sup>37)</sup> 특정업무나 활동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규제하는 組織的 技術을 의미한다.<sup>38)</sup> 公式化의 정도는 일차적으로 업무나 활동이 文書化(codified)된 構成比와 규칙 또는 규약에 의해 업무나 활동의 變異範圍가 제한받는 정도로써 측정할 수 있다.<sup>39)</sup> 그리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職責의 分化程度가 높고, 位階의 序列化도 엄격하며, 규칙이나 규약이 문서화된 정도로 높을 것이 예상된다. 이런 뜻에서 공식화는 官僚制化(bureaucratization)와 흡사한 요소가 많지만, 그 보다는 좁은 개념이라고 하겠다.<sup>40)</sup>

공식화의 정도는 Ⅱ장에서 보듯이 非公式·準公式·公式의 세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非公式的 水準은 개념적으로 자발적 결사체 상황이 아니므로 제외시켜야 할 것인데,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Chapin과 Tsouderos, Warriner와 Prather의 분류도식에서도 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Chapin과 Tsouderos의 成員役割集團에 가까울수록 準公式的으로, 事務員役割集團에 근접할수록 公式的인 결사체로 간주하고, 成員幹部役割集團과 成員代議役割集團의 형태는 앞의 두 형태 중 어느 것과 겹친 부분이 많으나에 따라 準公式的 또는 公式的인 것으로 판별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자발적 결사체의 機能에 관해서는 Rose의 것을 수정·보완한 Gordon과 Babchuk의 분류변수가 유용함을 Ⅲ장에서 확인하였다. 즉, 결사체의 활동이 成員志向일 때를 表出的이라 하

37) Hage, J. "An Axiomatic Theory of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 10, 1965, p. 295.

38) Hall, R.H., Organizations: Structure and Proces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1972, p. 196.

39) Hage, loc. cit.

40) Hall, op. cit., p. 188.

고. 外部志向인 경우 道具的, 이 兩者의 혼합형은 道具 - 表出的 結社體라고 한다.

마지막은 자발적 결사체 성원간의 社會的 相互作用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의 선정이다. 이 측면에 대해서는 Warriner 와 Prather 를 제외하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의 분류도식들이 이를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말해 주지만, 自然的 實験集團으로서의 자발적 결사체의 價値를 인정하면서도 그에의 접근이 技術的으로 어렵다는 데 간접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전제하자면, 이 측면을 관심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家族主義' 41) 나 '연줄망', 42) '集團主義' 43) 또는 '全人主義(personalism)' 44) 的인, 이른바 歸屬的·傳統的 組織化 原理에 의해 움직인다는 입장을 계승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견해 즉, 利益社會的 關係 혹은 二次的 關係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45) 자발적 결사체의 내부 메카니즘이 어떠한가도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성원들간의 상호작용 형태를 분류하는 용어는 여러가지로 제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익히 알려진 Cooley 의 原初的 關係(primary relation) 와 二次的 關係를 일부 수정해서 채용하기로 한다. 46) 상호작용의 親密度와 意思疎通의 對面性(face-to-face) 이 높고, 성원들 사이에 '우리 意識(the feeling of we-ness)' 47) 이 발달한 상태를 類似原初的 關係(primary-relation-like) 라 명명하고, 그 逆의 상태를 類似二次的 關係(secondary-relation-like) 로 규정한다.

Cooley 의 용어를 그대로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에 순수한 非公式的 原初集團은 배제하며, 자발적 결사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도 Cooley 가 의미한 原初的 關係에 近似할 뿐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가 드물 것이라는 추리에 있다. 48) 그리고 이렇게 달리 명명하더라도 한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 연구에 결코 지장을 초래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세 개의 分類變數를 추출한 셈이다. 이제 이 셋을 交叉시켜 <표-3>의 12개 유형을 제시할 수 있다. 표에 드러난 각 유형의 특징을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 41) 崔在錫, op. cit.: 李効再, "轉換期에선...", op. cit.,: 이영인, "한국 도시사회의 가족주의",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42) 金晉均, op. cit.,
- 43) Dore, R.P., "Groups and Individuals", in Yunshik Chang, et al.,(eds.), op. cit., pp.13-28.
- 44) Yunshik Chang, "Personalism...", op. cit. 와 張潤植, "韓國社會構造論 試圖", 國際文化財團 編 「韓國의 社會」(서울, 時事英語社), 1982, pp.131-148.
- 45) 예를 들면, 林燮燮, "韓國社會의 構造變化", 韓國社會科學研究所 編, 「韓國社會論」(서울, 民音社), 1980, pp.255-275: 박영신, "한국사회발전론 서설",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83, pp.259-272 등을 들 수 있다.
- 46) Cooley, C.H., op. cit.
- 47) Faris, E., *The Nature of Human Nature* (New York: McGraw-Hill, Inc.) 1977.
- 48) 자발적 결사체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二次的 關係의 측면이 우세한 까닭에, 과연 얼마만큼 原初的 關係에 가까운 代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cf, Silts, "Voluntary...", op. cit., p.373.

〈 표 - 3 〉

자발적 결사체의 분류

| 기능          | 조직적 구조 | 공식적 구조    |           | 준공식적 구조   |           |
|-------------|--------|-----------|-----------|-----------|-----------|
|             | 사회적 관계 | 유사 원초적 관계 | 유사 이차적 관계 | 유사 원초적 관계 | 유사 이차적 관계 |
| 도구적 기능      |        | ㄱ형        | ㄴ형        | ㄷ형        | ㄹ형        |
| 도구 - 표출적 기능 |        | ㄷ형        | ㄹ형        | ㅈ형        | ㅊ형        |
| 표출적 기능      |        | ㅊ형        | ㅋ형        | ㅋ형        | ㅌ형        |

ㄱ형 : 외부지향적인 社會影響力 活動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적 구조가 공식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의사결정, 제반활동이 類似原初的 關係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결사체, 비교적 규모가 큰 자발적 조직체에서 목격할 수 있는 형태인데, 소위 언술이나 特殊主義的 情誼性의 原理에 입각해서 성원의 구성, 직책의 배분이 좌우된다. 외부환경과 관계맺음도 그런 原理를 바탕으로 하고, 따라서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ㄴ형 : Warriner와 Prather의 유형 중, 'D型 = 生産的 機能' 結社體의 다수가 여기 속한다. 연합조직체인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처럼 道具的 役割을 하고, 공식적 구조를 갖춰 유사이차적인 성원관계를 보인다. 이 형태는 Weber의 의미에서의 官僚制化가 상당히 진척된, 규모가 큰 조직체에 많다. 외부환경과의 관계는 밀접한 반면, 'ㄱ형'과 달리 合理·打算의 이며, 때때로 융통성(flexibility)이 없어 환경적응이 더딜 수 있다.

ㄷ형 : 공식적 구조를 지니고, 활동범위가 道具-表出 兩面에 걸쳐 있으나, 성원들끼리 친숙히 알며 집단내 凝集力(cohesiveness)이 강하다. Warriner와 Prather의 'C型 = 象徵機能' 結社體 중 비교적 소규모인 秘密結社나 宗教關聯 團體가 이와 가깝다. 이런 결사체들은 외부환경에 대해 대체로 폐쇄적이나, 성원들과 직접 관련된 외부문제에는 적극 개입한다.

ㄹ형 : 공식화의 정도가 높고, 성원들의 상호작용도 類似二次的이며, 도구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ㄷ형'에 비해서 외부환경에 개방적이다. Warriner와 Prather의 'C型' 가운데 비교적 대규모의 종교관련 단체들이 그 예이고, 전국적 조직인 YMCA나 YWCA도 마찬가지이다.

ㅊ형 : 성원들의 표출적 활동을 위주로 하고, 성원들의 관계도 유사원초적이거나, 공식화의 정도는 높은 유형. 가령,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성원 자격을 제한하면서, 친족관계의 서열을 조직적 구조에 반영시켜 이를 유지하려고 규칙이나 규약을 엄격히 적용하는 결사체를 생각할 수 있다. 외부환경과의 관계는 고립적 경향을 보일 것이다.

ㅋ형 : 활동은 성원들의 친목이나 自己表現을 복돋는 데 치중하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세분되어 있고, 성원들의 관계도 결사체의 규범적 요구, 즉 규칙이 규정하는 방식을 쫓아 交流되는 類似二次的 水準의 형태, 걸 스카우트, 보이 스카우트처럼 청소년들의 지도·육성을 위한 결사체들을 예

시할 수 있다. 외부환경과의 관계는 그다지 폐쇄적이지 않고, 오히려 개방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ㄱ형' 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 때의 개방적이란 자신들이 가진 바를 결사체 외부로 표현한다는 뜻이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스형: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나 공식화 정도가 낮고, 성원들의 상호작용은 친밀한 類似原初的 關係를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뜻을 같이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만든 소규모의 봉사단체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그들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그러므로 외부환경과의 관계는 一方的이라고 보겠다.

ㅇ형: '스형' 과 성원간 상호작용이 유사이차적이어서 구별되나 나머지 두 특징은 거의 같다. 匿名의 사람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또는 후원단체를 想定할 수 있다. 외부환경과의 관계는 역시 '스형' 과 닮았다.

스형: 지역사회의 政治 및 經濟엘리트들을 성원으로 하는 라이온즈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처럼,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비교적 장기간 알고 지내 類似原初的 特徵을 보이며, 공식화의 정도가 낮고, 도구적·표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결사체. 예시된 라이온즈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관련된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sup>49)</sup> 즉, 이런 결사체들은 환경과의 관계가 밀접한 편이다.

츠형: '스형' 의 특징과 성원간 상호작용이 類似二次的이라는 점만 차이가 있다. 1960년 초엽에 비해 성원이 숫적으로 증가하고, 출신학교도 다양해진 현재의 韓國社會學會가 이런 형태이다.<sup>50)</sup>

ㅋ형: 성원들의 친목을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식화의 정도도 낮은 결사체, 이를 보면, 同鄉 혹은 近隣들의 親睦會, 그리고 Warriner 와 Prather 의 'B型=社交機能' 結社體를 들 수 있다. 이런 결사체들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주지도 않는다.

ㅌ형: 조직적 구조와 기능은 'ㅋ형' 과 거의 흡사하나 성원들의 관계는 類似二次的인 유형 Warriner 와 Prather 의 'A型=活動遂行의 즐거움' 結社體가 전형적이다. 'ㅋ형' 과 마찬가지로 외부환경과 고립적이다.

이상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12개 유형의 특징과 보기를 살펴보았다. 이 12개의 유형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분류한 것임은 물론이다. 'ㄱ형' 에서 보듯이 공식화가 진전될수록 그 집단내 성원들의 관계는 二次化하기 쉽다는 종래의 인식을 위의 분류도식은 일단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전통적 '家族主義' 나 '연줄망' 등의 조직화 원리가 우리 사회 도처에 깔려있다는 주장을 우선은 수용해놓고 나서 검증해 보자는 시도이다. 그리고, 구태여 공식화의 정도를 公式的·準

49) 상세진, "한국지역사회의 ...", op.cit.

50) 金瑛東 「現代社會學的 爭點: 메타社會學的 接近」(서울, 法文社), 1983, pp. 295 - 380. 참조

公式적으로 二分한 것도 Ⅱ장에서 본 것처럼 한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가 지닌 특이한 요소를 포용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분류도식에선 분류된 유형들의 특징에 들어 맞는 實例의 대부분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직접 구하지 못하고, 필자의 印象(impression)에 의존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분류도식은 假說的으로 구성된 잠정적 수준의 것이라 하겠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를 경험적으로 연구해 나가면서 정밀하게 수정·보완해야 함을 강조해 둔다.

## V. 結 論 과 提 言

본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관심을 한국사회에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이끌려 시도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자발적 결사체 연구의 準據를 형성을 위한 예비적 분류도식의 작성에 집중한 것도 그런 기대 때문이었다.

이제 논의를 끝내면서 한 가지만 재차 환기시키려 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廣域化하여 자발적 결사체를 概念化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 이런 개념화는 한국사회에의 적용을 고려할 때 가능한 것이다.

자발적 결사체를 공식화한 자발적 조직체만으로 한정시켜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연구하자면, 여러 가지 제약을 스스로 감수하는 격이 된다. 그런 협의의 개념에 의존하면 기본적인 參與率의 측정만 해도 한국사회에서는 상당히 낮을 것이 틀림없고,<sup>51)</sup> 이에 따라 자발적 결사체 현상자체의 實在함이 나 중요성을 그릇 평가하기 쉽다. 실령 중시한다 하더라도 官製的 또는 急進的 結社體를 전부인양 誤認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는 狹義의 자발적 결사체 이외의 자발적인 집단활동들 - 그것들이 사실은 자발적 결사체 개념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 을, '家族主義的' 이거나 '연출망적' 혹은 '集團主義的' 이라든지, 아니면 '全人主義的' 인, 이른바 귀속적·전통적 組織化 原理에 의해 짜여진 것으로 置之해버릴 소지도 있다. 더우기 이 方向을 따르면, 한국사회의 現存 組織化 原理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점도 있거니와, 자발적 결사체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사회조직체들을 치우치게 해석하여, 자칫 그 사회적 기여의 측면마저 무시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와의 상황적 연관을 고려하여 우선 자발적 결사체 개념을 폭

51) 1982년의 釜山市 기준자 1,047명중, 72.9%가 전혀 공식화한 자발적 결사체에 가입하지 않았고, 참여자 가운데 대부분은 表出的 結社體에 몰려있다는 조사연구가 있다. cf. 洪東植, op. op. cit.

넓게 세분하여 이해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술하게 축적된 다른 사회의 자발적 결사체에 관한 연구 결과들의 使用價値를 높이고, 쓸데없는 노력의 낭비를 막자는 뜻도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를 경험적으로 例示하지 못하고 假說水準의 분류도식을 提案하는 데 그쳤다. 그러므로 지금의 제안은 경험적 뒷받침이 부족하며, 이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자, 이 후의 연구를 위한 또 하나의 期待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를 인정한다 해도 본 연구의 제안은 한국사회의 자발적 결사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하다고 본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검토와 제안을 통해 자발적 결사체에 함축된 實踐的·學問的 意味가 다방면에 걸쳐 중요한 관심사가 됨을 충분히 시사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기에 한국사회의 變動方向이 자발적 결사체의 다양한 역할을 순조로이 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낙관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처지를 그런 사회조직체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개선되어야만 할 비관적 상황으로 파악하거나, 어느 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자발적 결사체들의 實體와 意味를 규명하는 노력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提言하는 것이다.